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1호 [루게 제2637호]

주제 110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음력 2월 1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승리의 기치를 너들이 들었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혁명앞에 나선 중대한 역사적과제는 전당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어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승고한 정치리념 - 이민위천

이민위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지론이었고 좌우명이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룩한 혁명생애의 전기간 고수하시고 펼쳐가신 정치리념, 정치철학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념이 승고한 뜻을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국가마다 자기의 정치리념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게 하는 참다운 리념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승고한 정치리념이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정의로운 인민을 위하여 만전을 지고 협한 가시밭도 헤쳐며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별사복부의 의지는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 무수한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았다.

물고기들을 받아안고 감정에 겨워하는 인민들의 모습

국의 투쟁사에서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남김없이 파시던 이민위천과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려면 누구나 삶과 투쟁의 진리로 간직해온 뜻깊은 글밭들이 새로운 전진과 더 큰 승리로로 천만대중을 힘차게 부르고있다.

영원한 백승의 무기 - 일심단결

지구상에는 령도대국, 인구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이라 자처하는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정치사상강국은 오직 공화국뿐이다 그것은 바로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단결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무기라고 밝혀주시었다.

가장 공고한 단결을 낳는 힘은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일심단결을 굳건히 고수하시고 더욱 반석같이 다지시어 그 불패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끄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지난해 8월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콘볼퍼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어 사랑의 특별조치들을 취해주시기도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어 이민위천을 승고한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믿음에 보답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고 하시며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기적창조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지금도 태풍과 콘볼로 처참한 피해를 입었던 흔적은

과 용기를 분출시키는 전진의 메아리, 장쾌한 승리의 메아리이다.

절세위인의 마음속에

그로록 불덩이처럼 간직된 인민, 그 인민을 위해 그처럼 고심하고 분투하시며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더욱 굳게 뭉치고 따르고 받드는 것이다.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에서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웨치던 열병대오들과 각종 군중들.

정녕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가 된 조선의 속도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를 펼치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결사관철의 의지로 받들어나가는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혁명앞에 나선 중대한 역사적과제는 전당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어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승고한 정치리념 - 이민위천

이민위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지론이었고 좌우명이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룩한 혁명생애의 전기간 고수하시고 펼쳐가신 정치리념, 정치철학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념이 승고한 뜻을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국가마다 자기의 정치리념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게 하는 참다운 리념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승고한 정치리념이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정의로운 인민을 위하여 만전을 지고 협한 가시밭도 헤쳐며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별사복부의 의지는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 무수한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았다.

물고기들을 받아안고 감정에 겨워하는 인민들의 모습

국의 투쟁사에서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남김없이 파시던 이민위천과 일심단결, 자력갱생.

영원한 백승의 무기 - 일심단결

지구상에는 령도대국, 인구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이라 자처하는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정치사상강국은 오직 공화국뿐이다 그것은 바로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단결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무기라고 밝혀주시었다.

가장 공고한 단결을 낳는 힘은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일심단결을 굳건히 고수하시고 더욱 반석같이 다지시어 그 불패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끄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지난해 8월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콘볼퍼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어 사랑의 특별조치들을 취해주시기도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어 이민위천을 승고한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믿음에 보답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고 하시며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기적창조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지금도 태풍과 콘볼로 처참한 피해를 입었던 흔적은

과 용기를 분출시키는 전진의 메아리, 장쾌한 승리의 메아리이다.

절세위인의 마음속에

그로록 불덩이처럼 간직된 인민, 그 인민을 위해 그처럼 고심하고 분투하시며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더욱 굳게 뭉치고 따르고 받드는 것이다.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에서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웨치던 열병대오들과 각종 군중들.

정녕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가 된 조선의 속도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를 펼치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결사관철의 의지로 받들어나가는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혁명앞에 나선 중대한 역사적과제는 전당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어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승고한 정치리념 - 이민위천

이민위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지론이었고 좌우명이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룩한 혁명생애의 전기간 고수하시고 펼쳐가신 정치리념, 정치철학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념이 승고한 뜻을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국가마다 자기의 정치리념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게 하는 참다운 리념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승고한 정치리념이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정의로운 인민을 위하여 만전을 지고 협한 가시밭도 헤쳐며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별사복부의 의지는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 무수한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았다.

물고기들을 받아안고 감정에 겨워하는 인민들의 모습

국의 투쟁사에서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남김없이 파시던 이민위천과 일심단결, 자력갱생.

영원한 백승의 무기 - 일심단결

지구상에는 령도대국, 인구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이라 자처하는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정치사상강국은 오직 공화국뿐이다 그것은 바로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단결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무기라고 밝혀주시었다.

가장 공고한 단결을 낳는 힘은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일심단결을 굳건히 고수하시고 더욱 반석같이 다지시어 그 불패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끄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지난해 8월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콘볼퍼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어 사랑의 특별조치들을 취해주시기도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어 이민위천을 승고한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믿음에 보답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고 하시며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기적창조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지금도 태풍과 콘볼로 처참한 피해를 입었던 흔적은



모두다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으로!

온 나라에 꽃피는 여성들의 행복넘치는 웃음

3.8국제부녀절 111회를 맞이한 온 나라에 여성들의 행복넘치는 웃음이 더 활짝 꽃피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피어나 사회주의대가정에 아름다운 향기를 더해 주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존경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이 축하의 꽃물결이 되어 방방곡곡에 끓어올랐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각지에서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화가 울려퍼졌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드리었다.

중앙과 지방의 극장, 야외무대들에서 다채로운 축하공연들이 진행되었다.

3.8 국제부녀절을 기념

3.8국제부녀절기념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모란봉극장에서 열렸다.

관현악 《너성은 꽃이라네》로 시작된 무대에는 관현악 《그네워는 처녀》, 남성독창 《사랑하시라》,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이강산 하도 좋아》, 관현악 《철명아래 사과바다》를 비롯한 중무들이 울렸다.

동평양극장에서 3.8국제부녀절기념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되었다.

내평중앙예술전대원들이 녀성회관에서 《복받은 녀성들의 노래》공연무대를 펼쳤다.

평양극장에서 진행된 혁명가극 명곡, 명장면무용공연을 이 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평양교예극장에서는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이 있었다.

중앙예술경제전대, 청년

중앙예술전대, 직속중앙로동자예술전대, 농근맹중앙예술전대, 철도에예술전대, 수도건설위원회예술전대 등이 당창건기념탑광장, 평양역광장, 통일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곳곳에 야외공연무대를 펼치고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평양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등 각지의 예술인들도 다채로운 축하공연으로 명절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각도, 시, 군과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군들이 녀성혁신자, 녀성과학자, 녀성교원을 비롯한 모범적인 녀성근로자들을 따듯이 축하해주었다.

각지의 금양봉사망들이 녀성들을 위한 명절봉사로 흥성이었다.

옥류관, 청류관, 평양면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여러 식당에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등의 녀성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친절히 봉사해주었다.

사리원의 경암각, 함흥의 신흥관을 비롯한 각 도의 이 품있는 금양봉사기지들에서도 녀성들이 명절을 즐겁게 쇠도록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가정들에서는 기념품상점, 꽃상점, 꽃매대들에서 고르고고른 축하장과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안겨주며 사회와 집단, 가정을 위해 남모르게 헌신하는 안례들과 어머니들을 축하해주는 남편과 자식들의 뜨거운 진정이 넘쳐흘렀고 녀성들의 기쁨넘치는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본사기자

조국 소식

26만산대발파진행

순천석회석광산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짚는 순천석회석광산에서 10월 26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황철로동계급의 호소에 더 높은 광물중산성으로 화답해나설 열의 안고 이곳로동계급이 대발파를 성공시킴으로써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에 주원료를 탄탄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광산에서는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데 맞게 화산석정지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도 고무추동하였다.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선진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는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농업 부문에서

산성토양과 랭습지 개량, 흠갈이 진행

공화국의 농업부문에서 저수확에서의 증산을 위한 영농준비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수만정보의 산성토양과 랭습지가 개량되고 많은 량의 흠갈이가 진행되었다.

남포시에서 필지별, 포전별

에 따르는 토양분석을 과학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광재비료, 린회토, 소석회뿌려주기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모매기가 많은 포전들에 흠갈이를 진행하였다. 개성시에서 산성토양과 랭습지에서의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소석회생산기지를 자체로

26만산대발파진행

순천석회석광산에서

현존생산도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대발파준비를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자체보장 등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세멘트중산의 돌파구를 열어제기는데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로동계의 로동자들은 암질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고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발파회수를 늘였다.

이들은 암석근기와 단면에 맞는 친공깊이를 확정하고 발파순환당 효률을 최대한 높여 수백m에 달하는 갱도굴진을 짧은 기간에 끝냈으며 발파구멍뽀기, 장약 등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대발파의 폭음을 울린 총천한 기세로순천석회석광산의 로동계급은 운명작업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평양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의 농업근로자들도 저수확자들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덕과 정 의 대 화 원

얼마전 부모를 잃었지만 한점 그들도 없이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 있는 한 오누이에 대한 이야기가 온 나라에 전해져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부모없는 아들과 설음을 가져주며 그들을 친자처럼 사랑하고 돌봐주는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베풀어온 따뜻한 덕과 정들의 일화들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덕과 정. 이는 평범한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공화국의 곳곳에서 풍기처럼, 생명수처럼 흐르는 고상한 미풍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은 사회에 덕과 정이 차 넘치게 하며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는 인민의 락원,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자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구상이고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비록 시련과 난관은 많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남들 같으면 얼빠진 듯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였지만 비판과 후회를 모르며 변명할 레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나아가는 위불굴의 기상의 밀바람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절세의 위인을 자애로운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세상에도 없는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덕과 정이 넘쳐나는 공화국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굳센 믿음과 확신이다.

30여년세월 특유영예군인의 안해로서 가정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면서도 나라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수없이 찾아온 남덕청년단장의 녀성로력영웅, 부모없는 7명 학생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고있는 신천군의 한 고급중학교 총교과원, 전쟁로병들을 위하여 성의껏 물자들을 마련하여 그들의 생일도 차려주고 사친도 짝어준 배천군 온천리관의 한 녀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사랑과 도덕의리, 덕과 정이 차 넘치는 공화국에서만 꽃피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고 락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좋은 때보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사람들속에서 덕과 정이 더욱 발전되고 온 사회에 차 넘치고 있다.

지난해에 나라를 련이어 휩쓴 레년에 없던 큰물과 태풍을 막아 준 수많은 제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왔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언제나 아름답게 하고 힘찬 전진에 활력을 부여주는 덕과 정은 더욱 뜨거워만 졌다.

자기들이 맡은 피해복구건설임무를 완수하고도 정든 집이 있는 평양으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복구지역으로 달려가 빛나는 위훈을 떨친 최정애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있는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자기 가족, 자기 일상상의 문제들을 뒤로 미루고 피해복구전역으로 달려갔으며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불과 담요, 부엌세간들을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성심성의로 마련하여 보내준 고마운이들은 또 그 얼마인가.

자녀가 어린 자식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북방의 피해복구전투로 떠난 녀인도 있고 몸은 비록 피해복구전역의 불꽃튀는 전투장에서 서 있지 못해도 마음만은 성스러운 전투대오의 한 성원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에게 붉은 기들을 만들어 보내준 영예군인도 있다.

중앙의 일군들이 생활상 불편을 겪는 인민들속에서 들어가 그들에게 육친의 정을 부여주고 수도가 지방을 성실성의로 도와주며 수재민들은 군당위원화청사에서 생활하고 군당일군들은 친막에서 사물하는 감동들은 화복은 물질만능과 《현대명풍》을 떠드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모방할수도, 만들어 낼수도 없는 것으로서 온 나라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룬 조선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지배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시련이 가중되어도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 밝게 웃으며 사업과 생활을 기백이 넘치고 락천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 미덕과 미풍의 화원으로 빛을 뿌리고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배부시는 뜨거운 열과 정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고 원천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끄는 무수한 덕행들과 미담들이 끊임없이 만발하고있는 것이다.

인민들은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나라의 천만자식모두를 크

전체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 구호는 공화국에서 너무나 귀에 익은 구호이다. 이 구호에는 공화국의 존립과 발전의 근본원리가 구현되어있고 공화국인민의 요구와 지향이 반영되어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처럼 자기 자신보다 먼저 조직과 집단을 생각하고 사회와 인민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성실한 맘을 바치는 인민들은 없을 것이다.

이 구호가 세상에 나온 것은 공화국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이루어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력사적시기였다.

구호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하여 제시되자마자 대중의 심장을 여세게 뚫어 잡았으며 인민들의 사상정

신영역과 투쟁기풍, 일본세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구호말에 천리마작업반 운동의 첫 봉화를 든 강성제강소(당시)의 진용원작업반은 5개년계획을 2년간이나 앞당겨 끝냈다.

천리마시대에 교대가 교대를 돕고 작업반이 작업반을 돕는것으로부터 시작된 집단적, 련대적혁신운동은 공장과 단위를 벗어나 부문과 부문들사이의 사시없는 방조와 긴밀한 협력관계로 확산되게 되었다.

이 구호와 더불어 태어난 로동당시대의 아름다운 인건들은 또 얼마나 많았단가.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개

조하여 자기 단위를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든 붉은 선동원들, 동지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 목숨도 주저없이 바친 송고한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이 수없이 배출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구호는 여전히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에서, 창조와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남국을 뚫고나가고 다같이 전진하는것이 고유한 국풍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자연의 대재앙이 들이닥쳤을 때에도 중앙의 일군들이 재난을 당한 인민들속에서 들어가 육친의 정을 부여주고 수도가 지방을 도와주는 가슴뜨거운 화복이 펼쳐졌다. 이것은

온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만 볼 수 있는 감동깊은 화복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극단한 개인주의와 너를 이겨야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생각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풍모와 기풍은 공화국의 자랑이고 위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공화국에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구호가 계속 높이 울릴것이며 그속에서 사회는 더욱 화목해지고 단결될것이며 인민이 세상에 부럽없이 잘사는 행복의 락원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김 주 경

이 땅에 자기의 깨끗한 맘을 묻는 농업근로자들이다. 돌이켜보면 70여년을 헤아리는 공화국의 력사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이 기여하는 수많은 애국농민들이 기록되어있다.

지금으로부터 75년전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의 발표는 재봉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던 이 나라 농민들의 세기적소망을 풀어 준 력사적사건이었다.

죽어 물결 한때기 땅마저 없어 대대로 머슴살이를 해야 했던 사립들, 일년 내내 피땀으로 지은 곡식을 다 빼앗기고 죽지 못해 살아야만 했던것이 이 나라 농민들의 비참한 운명이었다.

이런 그들이 해방후 토지개혁의 덕으로 땅을 부여받은 기쁨을 안고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황해도의 김제원농민은 일년 내내 남보다 열성적으로 일하여 첫째 농사에서 많은 소출을 내고 30가마나 쌀을 애국미로 국가에 헌납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황해도의 류창림, 강원도의 전보연, 김치운, 평안북도의 최재원농민을 비롯한 북조선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애국적농민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참뜻에서 애국미헌납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평범한 농민들속에서 일어난 이 애국미헌납운동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건설을 비롯한 새 조국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또 이떠했는가. 한치의 땅도 목이지 말며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많이



늘어나는 인민의 재부를 보며

최근에 공화국의 곳곳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인민의 창조물들이 존공되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었다.

평양시 남사리지구에 산뜻하게 일떠선 은정차음료공장, 장차강기슭에 훌륭히 건설된 자강도예술극장, 조선식학각지붕을 얹고 특색있게 건설된 평안남도양로원, 개진현대화된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면 나의 가슴속에 대한 긍지와 함께 그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안겨들었다.

분명 늘어나는 저 건물들은 인민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

사실 세상을 둘러보면 늘어나는 말과 함께 커가는 행복을 음미해보는 인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니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각도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의 전파로 이 행성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악성비루스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각종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늘어나고있으며 살길을 찾아 떠나는 피난민수가 늘어나고 살인과 강도, 마약범죄자가 늘어나 커가는 것은 불행과 고통뿐이다.

늘어나는 하나의 말을 놓고 관이하게 안겨오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한 모습과 지구상의 많은 나라 인민들의 불행한 모습을 그려보며 나의 사색은 깊어간다.

정령 커가는 행복속에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드는 것은 무엇이란가.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이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멀고 험한 위민현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천만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는 행복의 창조물들이 이 땅엔 얼마나 많이도 일떠섰는가.

얼마전에 진행된 제1차 시, 군 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우리 인민을 섬기는 길에서 인민들이 실지 인정하는 진재비 총실한 심부름군이 되자라는 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어찌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

에는 오직 인민, 인민밖에 없는 것일까.

그래서 이 땅에 일떠서는 창조물들은 그리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는 것 아니겠는가.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일떠서는 창조물들 하나하나를 범상하게 대하지 않는다.

늘어나는 그 건축물들마다에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천만로고가 어려있기.

그렇다.

인민을 하늘같이 떠받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창조물들이 날아갈이 없지만 가는 것이 인민의 행복 또한 커만 가는 것이다.

유 금 주

은정차음료공장

평안남도양로원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

자강도예술극장

썩고 병든 사회의 고질적 병폐

남조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지구의 토지를 로 하여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스스로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사건이 러져 사 《LH》직원 10여명과 그의 가족들이 사 포기하고있는 때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 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전에 사들었다는 것이다. 건이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격분을 러뜨 당국이 새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는 부동산가격으 리고있다고 한다.

《이 생 집 망》

《내 집 마련》은 남조선인 민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되 고있다. 하지만 청정부의 집값때 문에 《흙수저》로 불리우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를 수 없 는 꿈이 되고 있다. 하루 자고나면 수억원씩 집 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 월세를 마련 하는 것도 고역이라고 한다. 향간에서는 《전세집도 령 끝대출(명혼까지 끌어모은 대출)해야 겨우 입주》, 《수십억원씩 한다는 아바 트는 판세상이야기》, 《미 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 온 지 오래다.

그런 속에 《이생망(이 생은 망했다.)》, 《이생집 망(이 생 집은 망했다.)》이 라는 말도 생겨났다.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혼은 언제까지 미루어야 할까. 집값은 과연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 미친 집값 에는 어떤 처방이 있을까.》 이것은 결혼을 앞두고 집 을 마련하려다 끝내 좌절 당한 한 주민의 토로라고 한다. 현실이 이러한 때에 러진 《LH》부동산투기의혹사건 은 불는 불에 쏟아진 기름 처럼 민심의 분노를 더 폭 게 하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사건이 러지자 남조선당국 은 즉시 《정부합동조사단》 을 내오고 본격적인 사건조 사에 착수하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벌백 계》를 주장하면서 공무원들 의 부동산투기는 《폐가망 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 실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립 장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었지른 물 이다. 남조선사회에 만연된 사기 와 협박, 부패를 그런 뻔질 식, 소박대식으로는 바로잡 을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문제도 그렇다. 남조선의 어느 한 연구소 의 자료에 의하면 토지소유 자의 10%가 70%의 부동산

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그 가진자, 권력자들이 직 권, 금권을 탐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몰두해온 것이다. 부동산투기는 자본주의의 구조적모순과 기형적발전, 《황금만능》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 《LH》부동산투기의혹사 건은 송사러들의 《장난》에

울행이적을 생각

가 관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세력이 이 번 사건을 또다시 《정치 화》하면서 당국과 여당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다.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더 니 저들이 대대로 저러온 부정부패는 생각 못하는 모양이다.

리명백과 그의 일가친척 들이 얽힌 도곡동땅투기사 건과 내곡동땅투기사건, 천 문학적인 형제만 랑비하고 《부실한 정책》으로 결론 된 《4대강정비사업》이 그 들에게는 과연 옛날로 들 리는가. 현재 《국민의힘》 서울 시장후보도 자기가 보유한

지나지 않는다. 병을 고치자면 근원을 다 스러야 하는 것이다. 하기에 《정의당》의 한 인 물도 《부동산으로 부를 축 적하고 세습세습하는 이 지 키지 못한 서울자본주의를 끝 내기 위한 전국민적대책기 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한 것이다.

못하는 보수야당

땅을 주택지수로 지정되게 하여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땅투기의혹을 벗지 못 하고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각종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부정부패의혹때문에 탈당을 하여 《표리자라기식》이라

남조선에서 4월보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분 주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 민의 당》이 서울시장후보단 일화를 놓고 옥신각신하고있 다고 한다. 우선 여론조사방식을 놓고 리각대각하고있다. 신문 《한겨레》가 보도 한데 의하면 《국민의 당》 은 《100% 여론조사》방 식을, 《국민의힘》은 여 론조사비중을 낮춘 《개방 형시민경선》을 주장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100% 여 론조사》방식을 거부하는것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당》 후보가 우세한 결과가 나오 고있기때문이다. 저들의 방 식으로 하면 당원조직력 등 에서 《국민의힘》에 불리하 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여론 은 평하였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 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들 이 존재하고 민족마다 자기 들의 언어를 가지고있지만 우리 조상어처럼 우수한 언어 는 없을 것이다. 말소리가 아름답고 류창하 며 발음에 의한 형상이 풍부 할뿐 아니라 어휘와 표현, 문 체가 세련되어있는 등 우수 한 특성이 많은 우리 민족의 언어이다.

재 주 연

는 비난을 받은적도 있다. 망둥이따라 뛰는 꼴투기처럼 이번 사건을 두고 결타 라 열을 올리는 전 검찰총장 도 처와 장모의 부동산투기, 곰품수수후의 때로 얼룩진 인간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 수야당이 이번 사건을 《정치화》하는 데 대해 남 조선언론 《뉴스1》은 야권 이 총공세에 나섰다고 보 도하였다.

특히 한달도 채 남지 않은 보총선거를 앞두고 《정부》 실정을 부각시켜 지지층결집 을 도모하기 위해 《LH》사 태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하였다. 본사기자 김 정 령

이후 《국민의힘》후보가 《100% 여론조사》를 수 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남조선 언 론 《해탈경제》는 최근 《국민의힘》후보의 지지력 이 상승하고있어 《국민의 당》 후보와 《해탈만 하다.》 는 자신감이 깔렸다는 정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시정배들의 싸움

의 후보인지를 생각하지 어 스 특정인을 놓고 판단하지 않 는다. 《과연 기호 4번인 국 민의 당을 가지고 선거에 서 이기겠는가》며 《국민 의 당》을 짚아내리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소수당인 《국민 의 당》후보는 야당을 대표 할 후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력조사》는 《어스

최근 남조선의 각 계층 진보운동단체 들이 서울에서 반민 주적이며 반동일적 인 악법의 철폐투쟁 을 광범히 전개해나 가기 위한 《보안법 폐지국민행동》을 결 성하였다. 결성식에는 진보당 과 민주로총, 전국 농민회총련맹, 《한 국대학생진보련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 한 100여개의 진보 운동단체들이 참가 하였다고 한다. 결성식에서 참가 자들은 《보안법》이 지난 70여년동안 주민들의 기본권리 를 침해해온것은 물론 《분단체제의 수 호자》로 군림해왔다 고 규탄하면서 동족 을 《적》으로 규정 하고 민주주의와 평 화, 인권을 짓밟고있 는 《보안법》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10만국회청원》

운동, 문화예술활동, 간담 회, 전 지역의 1 000곳에서 《보안법》철폐를 위한 동시 다발적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정기 《국회》에 서 《보안법》폐지를 립법화 하도록 하기 위한 민중대 회를 광범위하게 벌리는 등 대중적운동을 적극 전개해나 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단체들은 모든 힘 을 다하여 《보안법》폐지 운동의 앞장에 서겠다, 너 성들도 《보안법》폐지를 위 해 나서겠다, 예술의 무기로 《보안법》을 폐지하 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 《보 안법》철폐를 위한 《국민대 저항운동》을 벌리겠다고 결 의하였다. 이번 결성식과 관련하여 남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장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방식이 다. 《선거는 누가 누구를 이 기는가 하는 후보들간의 경쟁 이다. 결국 경쟁자인 여론의 유 력후보와 대결해 승리할수 있는 후보를 뽑는것이 상식

단일화를 위한 1차실무협상 단의 접촉에서 서로가 《시 간을 질질 끌다가 (야당의 고질병), (아직도 정진 못 차린다.)는 평을 받는다.》, 상대측이 고의로 협상을 지 연시키는 《침대추구》전술 을 쓴다. 《역지론리도 공격 하는것을 보니 다급하고 초 초한것 같다.》고 얼굴을 붉 히었다고 보도하였다. 야권후보단일화를 놓고 바 줄당기기를 하는 보수야당들 의 싸움은 승부를 가리기 어 려운 판이다. 궁극에는 누가 보수야당세 력들의 단일후보가 되는것이 가 하는것인데 당리당략과 권력야욕에 환장한 정치간상 배들에게 《양보》라는것이 있을수 있겠는가. 보수야당들의 추악한 몰골 은 남조선 각계층의 환멸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장 령 범

더 큰 대립으로 치달는 남조선정계

최근 남조선에서 검찰총장 이 전직사퇴하였다고 한다. 당국이 추진하고있는 검 찰개혁에 반발하여 그 무슨 《헌법》정신, 《법치》를 운운하며 사퇴하였지만 내 막은 다른데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남조선의 전 문가들은 《철저한 정치적개 산에 따른 선택》, 《본심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 면서 전직사퇴한 검찰총장을 《죽은 권력만 물어뜯던 히 에나》, 《거짓을 일삼는 양 치기검사, 정치검사》라고 비 난해나섰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 을 맨적이 있는것으로 하여 《원칙》과 《소신》이 강한 인물로 평가되고 인기가 쏠 오르자 정계에 나서보려는 욕망을 앞세워 몇달 안되는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

퇴를 한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한편 검찰총장의 사퇴로 보총선거를 앞두고 개와 고 양이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던 정치권이 더욱 복잡한 양상 을 띠게 될것이라는것이 전문 가들의 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의 사퇴를 《법치와 국민 에 대한 배신》으로 락인하 고 《투검》까지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정계 에 진출하여 이전 유엔사 무총장이나 전 《미래통합 당》 대표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정계 진출실례론》을 여론화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국민의힘》을 비 롯한 보수야당은 《그의 고인을 리해한다.》, 《이

제는 〈야당사람〉이다.》라 고 하면서 저들에게로 끌 어당겨보려고 추파를 던지 고있다. 《국민의힘》의 어떤 인물 은 그가 《피물이면 어떻 고 악마면 어떤가. 그를 안 고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고 말했다는가 하면 《국민의 당》은 그대로 자기들과 추 구하는 방향이 같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수 있도 록 제3지대에 공간을 만들 어주겠다고 유혹하고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싸 고 더욱 복잡해지는 정치권 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 은 벌써부터 정치권이 쪼고 있다. 보수야권의 정치세력개 편이 가속화될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하고있다.

재 주 연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력사를 러무니없이 외곡하고 날조한 용납 못할 만행

지난 세기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 의 《렬등성》, 《후진성》과 야마도민족의 《우월성》을 조작설교하여 우리 민족 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합리 화하려고 날뛰었다. 조선력사에 대한 전면적인 외곡날조행위가 그것을 실증 한다. 일제의 조선력사외곡말 살 책등에서 엄중한것은 고조선 의 력사와 단군관계자료들 을 말살하려고 함으로써 우 리 민족의 뿌리를 잘라버리 려 한것이다. 고조선은 인류사의 령명기 에 출현한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이며 고조선의 력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시원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그러나 일제는 강점초기부 터 헌병, 경찰들을 동원하여 전국각지의 책방들과 학교, 서원 심지어 개인집들까지 살 살이 뒤져서 단군관계서적들 과 저들의 동화정책에 저촉 되는 우리 나라의 력사책들 을 모조리 압수하여 불태워 버리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만 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총독 테라우치의 명령 에 의하여 제1차로 불타 버 린 민족고전력사책들은 무려 20여만부에 달하였다고 한다. 지어 일제는 단군관계서적 만이 아니라 고분벽화에 그 러진 단군의 화상까지 없애 버렸다. 이와 병행하여 일제는 조 선력사의곡책등도 대대적으 로 벌렸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에 《조 선사편찬위원회》(후에 《조선 사편찬회》로 개칭)라는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저들의 사 이비사가들과 리안용을 비롯 한 애국역적들을 끌어들여 조 선총독부 정부총감의 직접적 지휘밑에 조직적인 조선력사의 곡행위를 감행하였다. 교활한 일제는 이마니시, 나이도, 구로이다, 핫토리 와 같은 력사위조의 명수들 을 내세워 조선사를 제멋대 로 외곡날조하여 편찬하게 하였다. 《조선사편찬회》는 10여년 간에 걸쳐 6번 35권의 《조 선사》라는것을 만들어냈는 데 그것들은 모두 외곡위조 된 력사로 가득차있었다.

일제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구실밑에 《단군조선》의 력 사를 송두리채 빼버리고 단 군이 실재한 인물이나 아니 라 신화적인물이라는것을 《론 중》하게 하였으며 단군이 신 화적인물이기때문에 《조선 사》에 서술할수 없다는 강도 짙은 논리를 내세웠다. 그리고는 단군조선의 력 사를 비롯하여 고대국가들 의 력사를 《원시사회의 력 사》, 《전설적인 력사》로 만들어버리고 조선에서 국가 형성시기를 삼국시기로 내려 잡았다. 목적은 《우월한》 야마도 민족이 《탁후한》 조선민족 을 지배하는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세우자는데 있었으며 일본에서 문명사회에로의 이 행이 조선보다 뒤떨어진것을 가리키고 마치고 일본이 조 선보다 앞서 발전한 큰 나 라였던것처럼 위장하자는것이 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년에도 수 백년 늦잠자고 구구려는 기원전 후시기로, 백제, 신라는 4세 기 중엽으로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일제는 우리 민족 사의 2천수백년을 아예 칼질 해버렸다. 일제의 천인공노할 력사위 조행위에 대해 당시 《동아 일보》는 《이른바 《력사》에는 조선의 문헌, 전설에도 전혀 없으며 또 우리들이 꿈 에도 보지 못했던 전혀 허망 한 사실이 취급되어있다.》고 폭로하였다. 조선의 근세력사도 그런 방법으로 날조하였다. 실례로 예속적인 《강화도 조약》체결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저들이 일원무장 도발사건인 《운양》호사건을 《일본군함이 강화도에 들렀 을 때 불에 포격을 당하였 기때문에 황군은 즉시로 포 대를 함락시켰다.》라고 외곡 하고 침략적이며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이 마치 《조 선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선과 일본의 《수호조약》 인것처럼 묘사하였다. 또한 조선에 대한 저들의 독 점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진행한 1894년~1895년의 《청 일전쟁》과 1904년~1905년의 《로일전쟁》에 대하여서도 그

늘어나는 잡랑말, 사라지는 민족어

의성의태어만 보아도 세계 의 다른 언어에 비할바없이 풍부하다. 《졸출》, 《화좌》, 《철 첩》과 같이 자연세계의 음 향을 비롯한 각종 소리들을 묘사하는 의성이와 《반짝반 짝》, 《초롱초롱》, 《깜빡 깜빡》과 같이 사물현상의 모 양, 성질, 움직임을 섬세하 게 그려내는 의태어를 비롯 하여 자연과 사물현상의 미 세한 차이까지도 원만히 표 현할수 있는 풍부한 형상적 표현력을 가지고있다. 하기에 조선어는 세계의 《언어올림픽》에서 최우수 언어로 금메달까지 받았고 세계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언어학계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는 《훈민정음》을 세계유산 으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세계가 공인하는 우수한 언어이고 일제의 악 략한 민족성말살책등속에 서도 지켜낸 우리의 언어 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기 의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현재 남조선의 거리에 나 불은 삼점과 식당간판들과 회사이름들, 공공기관명판들

이 많은 경우 외래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파라다이스 시티호텔》, 《글래드호텔》이나 《올리브 마켓》, 《벨트벨링》와 같은 식당간판들도 그렇고 회사이 름을 비롯하여 외래어로 된 명칭들이 수다하다고 한다. 지어 대구, 경북지방은 《TK》로, 부산, 경남지역 은 《PK》와 같은 영어략자 로 쓰는 등 고유명사들도 외 래어에 자리를 내주고있다는 것이다. 외래어가 판을 치는 속에 《왕따》, 《대박》, 《싱글 족》(홀로 사는 사람), 《푸어 족》(가난한 사람), 《이태백》(이심태반이 백수), 《이생 망》(이 생은 망했다)과 같 은 잡랑말과 비속어들이 신 조어로 범람하여 남조선주민 들속에 전파되고 텔레비존으 로도 공공연히 방영되고있

고 한다. 보고 듣는것이 이런 외래 어, 잡랑말이니 남조선주민 들과 지어 아이들까지도 외 래어를 모르고 신조어를 모 르면 죽어 끼우지 못하고 《이방인》취급을 받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 론은 《정체불명의 줄임말 이나 인터넷에 신조어들이 쏟아지면서 같은 우리 말 의 통역이 필요할 지경이다. 요즘 10대청소년들의 대화는 또 어떤가. 말을 하는건지 지 욕을 하는건지 알아들 기 어려운 정도》라고 개탄 하였다. 민족을 특징짓는 우리 말 이 배척당하고 사멸된다는 것은 자기의 민족성을 스스로 버리는 자살행위와 마찬 가지다. 늘어나는 외곡말, 잡랑말 과 사라지는 민족어, 남조선 의 실태는 우리 겨레의 우려 를 자아내고있다. 신 기 북

변함없는 재침야망

주의부활과 재침야망이 일반 주민들의 의식에도 전염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 일본당국 은 히로시마를 비롯한 나라 의 여러곳에서 독도가 자기 들의 땅이라는 주제로 전시 회를 열고도 도표에 설치된 이른바 《영토주권전시관》의 방문자수도 1만 5 000명을 넘었다고 선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을 비 롯한 각종 선전수단들을 동 원하여 11개의 언어로 《독도 령유권》주장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을 비 롯한 각종 선전수단들을 동 원하여 11개의 언어로 《독도 령유권》주장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을 비 롯한 각종 선전수단들을 동 원하여 11개의 언어로 《독도 령유권》주장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을 비 롯한 각종 선전수단들을 동 원하여 11개의 언어로 《독도 령유권》주장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이 사진은 야스쿠니신자 를 참배하는 일본방문객의 모습이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쓴 글이 전방기인 《옥일기》를 바탕으로 새겨진 저 옷차림 에서 일본의 변함없는 군국

왜서인가. 독도를 매개물 로 일본주민들속에 조선민 족에 대한 중요성과 복수심 을 불리일으켜 《대동아공영 권》의 망상을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천만에, 독도는 빼앗길수 없고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 는 조선민족의 령토, 삼천리 강토의 한 부분이다. 우긴다고 하여 독도가 일 본땅으로 될수 없고 망상을 한다고 력사가 그대로 호르 는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과 그것 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일본의 변함없는 령토팽창 야망, 침략야망을 다시금 보 여주는 사진이다. 정 절 남



이후 《국민의힘》후보가 《100% 여론조사》를 수 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남조선 언 론 《해탈경제》는 최근 《국민의힘》후보의 지지력 이 상승하고있어 《국민의 당》 후보와 《해탈만 하다.》 는 자신감이 깔렸다는 정치

이후 《국민의힘》후보가 《100% 여론조사》를 수 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남조선 언 론 《해탈경제》는 최근 《국민의힘》후보의 지지력 이 상승하고있어 《국민의 당》 후보와 《해탈만 하다.》 는 자신감이 깔렸다는 정치

이후 《국민의힘》후보가 《100% 여론조사》를 수 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남조선 언 론 《해탈경제》는 최근 《국민의힘》후보의 지지력 이 상승하고있어 《국민의 당》 후보와 《해탈만 하다.》 는 자신감이 깔렸다는 정치

이후 《국민의힘》후보가 《100% 여론조사》를 수 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남조선 언 론 《해탈경제》는 최근 《국민의힘》후보의 지지력 이 상승하고있어 《국민의 당》 후보와 《해탈만 하다.》 는 자신감이 깔렸다는 정치

변함없는 재침야망

이 사진은 야스쿠니신자 를 참배하는 일본방문객의 모습이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쓴 글이 전방기인 《옥일기》를 바탕으로 새겨진 저 옷차림 에서 일본의 변함없는 군국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제

류경안과종합병원

◇ 평양의 풍치수려한 문수지구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축물이 있다. 그것은 걸모습부터가 눈치로 전문으로 하는 건물이라는 특징이 한눈에 안겨오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이다.

◇ 류경안과종합병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병원으로 훌륭히 일떠섰다.

인민들의 시력을 보호해주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할것을 몸소 맡기하시고 병원의 위치와 규모는 물론 형성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힘있는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고 자체보장 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

주제105(2016)년 10월 새로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인 병원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 4층으로 된 외래병동과 8층으로 된 입원실 병동 등으로 이루어진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여러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하여 봉사해주는 안경상점까지 갖춘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이 개원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무료로 검진 및 치료를 받고 광명을 되찾았다.

이러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한 외국인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과 같은 현대적인 병원에서의 하루 입원비가 수천US\$에 달하여 돈없는 사람들은 실명을 당해도 병을 고칠수가 없다.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여기서 눈물겹게 알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우리 고향, 우리 제품

질 좋고 다양한 천연 향료들

평양향료공장에서 향료의 품종을 확대하고 생산을 늘이고있다. 최근 여러가지 천연식물을 리용한 기능성 향수들과 조미용향료들이 더 늘어났다. 공장에서는 40여종의 식용향료와 20여종의 공업용향료 그리고 몸향수, 방안향수를 생산하고있다. 새로운 효소발효법으로 향기증강효과를 높인 과일류향료들은 식료품과 치과위생용 향료들이 식료품, 화장품, 일용품생산 단위들과 소비자들이 매우 좋아한다.

공장의 향료연구소에서는 새 품종의 질 좋은 향료들을 연구개발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현재 천연식물들에서 추출한 수십가지 정유들을 향료생산에 리용하고있다. 새로운 효소발효법으로 향기증강효과를 높인 과일류향료들은 식료품과 치과위생용 품생산에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만만한 야식을 지닌 20대 박사

지난 2월 공화국에서 지식인들에게 학위학적이 수여되었다.

국가학위학적수여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나라의 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많은 교원, 연구사들에게 박사의 학위가 수여되었다.

그들중에는 20대 초엽의 애젊은 한 청년도 있었다. 이름은 배지성, 나이는 23살,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생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은 기자는 불타는 열정과 높은 실력으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배지성을 만났다. 이미 재학기간에 배지성은 비선형나노광학연구집단에

속하여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에 여러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물리학회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있다.

그는 대학기간에 물리학사학위를 받았고 연속교육제에 망라되어 박사원에서 공부하면서 비선형나노광학 연구에 계속 심화시켰다.

이번에 그는 《자기플라즈몬의 변조와 한방향전파》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문을 집필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한 두뇌를 가진 그는 나라의 이름난 수재양성기지인 평양제1중학교에서 공부하였고 그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에서 희망의 나라를

향짝 펼치었다.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이름 있는 교원, 연구사들의 지도와 방조속에 분초를 쫓으며 과학탐구의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그러던 주제105(2016)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교직원, 학생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었다.

대학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높이 받들고 세계 일류급대학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가 공부하던 물리학과에서도 창조형인재육성과 첨단과제연구, 기술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연구형학부건설을 지향하면서 본과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과학연구사업에 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배지성의 연구분야는 빛과 재료의 호상작용에 기초한 과학분야로서 새세대정보기술, 에베르기기술, 새재료기술의 원리적, 방법론적 기초를 주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연구의 초점이 되고있다.

학부와 대학적인 학과경연들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첨단과학연구에 달라붙었다. 새 세대의 젊은 과학자뒤에는 그를 키운 훌륭한 스승이 있는 법이다.

현재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 실장으로 사임하고있으며 그의 지도교원이기도 한 임성진은 세계적수준의 논문을 수십건이나 발표하였고 세계 광학협회 등에서 국제학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있다.

배지성은 《임성진실장을 비롯한 학부연구실의 방조를 받으며 짧은 기간에 첨단과학분야의 전문지식들을 독파하고 연구사업에서 성공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배지성은 비선형나노광학을 발전시키면 나노과학과 광학, 재료과학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면서 박사원기간에 첨단연구성과들을 이룩할 결심을 피력하였다.

그의 꿈은 조선을 빛내이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두뇌로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를 디디고 올라 조선을 빛내이겠다는 야심과 배짱을 지닌 20대박사 배지성, 그는 오늘도 첨단과학연구에 심혈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사람들은 흔히 너인들의 수고나 헌신을 두고 이야기할 때 마음씨와 함께 손을 떠올리곤 한다.

한가정의 주부로서 집안살림을 도맡아하며 자식들을 조국앞에 훌륭히 키워 내세우는 너인들의 손을 두고 행복을 창조하고 미래를 안아키우는 보배로운 손이라 이르기도 한다.

우리 집에도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있지 않은 곳이란 없으며 그 손길아래서 내가 자랐고 가정의 기쁨과 웃음이 꽃피었다.

그러나 그러한 어머니의 두손이 단순히 자식을 어엿하게 내세우고 한집안의 화목과 행복만을 가꾸어 보배로운 손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다.

머칠질 나는 3.8국제부녀절을 맞는 어머니를 축하해

주려고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다. 흥겨운 마음으로 방안에 들어서던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책상우에는 향기로운 꽃다발이 여러개나 놓여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있지 않은 곳이란 없으며 그 손길아래서 내가 자랐고 가정의 기쁨과 웃음이 꽃피었다.

그러나 그러한 어머니의 두손이 단순히 자식을 어엿하게 내세우고 한집안의 화목과 행복만을 가꾸어 보배로운 손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다.

머칠질 나는 3.8국제부녀절을 맞는 어머니를 축하해

넘쳐 수행하고도 성취하지 않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노라니 애뜻한 감정과 함께 자연히 나의 눈길이 어머니의 손으로 갔다.

늘 봐야 언제 한번 마를 새 없는 어머니의 손, 아침저녁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주고 추울새라 더울새라 마음쓰는 따뜻한 손이라 어머니의 두손은 단순히 음식속씨나 바느질속씨로 재간많은 손이 아니었다. 한가정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재부를 창조해가는 어머니의 손!

나의 어머니만이 아닌 이

땅의 수많은 녀성들이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관철을 위한 오늘의 진군길에서 혁명의 한복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기에 조국의 아름다운 레일이 더 빨리 마중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속도록 놓지 못했다. 보배로운 두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어머니처럼 나도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혁신자, 참된 애국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어머니의 두손을 쓰다듬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나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귀여우면 한중인 자그만 손에 그 얼마나 큰 힘이 실려있던가 ...

리진홍

☆ 필 ☆ 작아도 큰손

(아니, 벌써 누가 이렇게?) 어머니는 의아해하는 나에게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기업을 일꾼들이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3.8국제부녀절을 맞는 자기를 축하해주고 먼저 왔다 갔다고 말해주었다. 함께 일하는 고마운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직포공으로서 매일 계획을 150%이

차려주고 추울새라 더울새라 마음쓰는 따뜻한 손이라 어머니의 두손은 단순히 음식속씨나 바느질속씨로 재간많은 손이 아니었다. 한가정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재부를 창조해가는 어머니의 손!

나의 어머니만이 아닌 이

축구선수후비양성을 위한 교육기회



2019년 5월 인터넷에 실린 한 기사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지난 5년간에 6만 3 000여명의 국내외학생들이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공화국의 아이들만이 아니라 외국의 어린이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미국의 CNN방송은 언젠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하면서 《여름에 별한 자식들을 달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으로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통해 본 조선의 현실은 서방의 악선전과는 얼마나 판이한가. 아이들의 왕국인 조선의 현실을 엿보게 하는 산 증거이다. 야영생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평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참관하고 돌아온 날 나는 나의 심정을 일기장에 이렇게 담았다.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 같으면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최상급의 야영수들에서 로동자, 농민, 탄부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있다. 국가의 보살핌과 혜택속에

북벌의 교육현장을 가다 명당자리, 명승지마다에 (2)

서 자란 그들은 어려서부터 보답의 마음을 안고 성장한다. 바로 그 마음은 애국주의로 성장하게 되고 자기를 키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치는것이 되었다.

후날 이런 느낌을 또다시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2019년 4월 나는 공화국에서 는 물론 남조선과 해외에 휘파람가수로 널리 알려져있는 보천보전악단의 가수였던 전혜영과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지금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성악지도교원으로 근무하고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관람을 마치고 전혜영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그에게 화려한 무대를 내려 아이들을 가르치고있는것이 좀 서운하지 않은가고 물었다.

마흔을 켜 넘긴 얼굴이지만 아직도 북소리들이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20대나 다름이 없이 맑았다. 역시 명가수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부른 《휘파람》의 노래소리가

귀전에 들리는것 같기도 했다. 그는 물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때도 잊을수 없지만 나라의 왕들을 가르치는 지금도 너무나 행복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 오늘날은 나라가 다 아는 가수로 자라날수 있는것은 그 싹을 찾아준 고마운 선생님이었고 그 싹을 꽃피울수 있도록 훌륭한 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국가의 혜택때문이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 언덕에 보답하는것은 당연한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들인가는 온 나라의 제일 좋은 명당자리들에 아이들을 위한 궁전이 솟아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이 이야기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 나라가 그처럼 어렵던 고난의 날에도 아이들의 궁전의 불빛만은 꺼질줄 몰랐다고, 오늘도 아이들은 그 사랑, 그 은덕을 노래로 전해가고있

다고. 내가 그 노래를 들려줄수 없겠는가 하고 하자 그는 소조 성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하고 자신이 직접 피아노반주를 했다.

단정하게 생긴 남학생의 노래소리는 마치 성악공명경연에 나선 경연자를 방불케 했다.

... 재를 털고 학교를 먼저 세웠고 야영소와 궁전도 세워주신 대원수님 불빛은 궁전 봐도 힘이 솟는다 아이들을 왕이라 불러주셨네 아 우릴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대원수님 우리 해님 천만년 빛나라

... 얼마나 노래를 절절하게 부르는지 내 가슴도 찢어르 울렸다. 불빛은 궁전 봐도 힘이 솟는다시며 아이들을 왕이라 불러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이

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석님께서 아이들에게 바치신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우셨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제정을 요구하는 나에게 어제날의 가수는 꽤요청을 받아들이며 소조 전체 성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공화국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하는 노래라고 주해를 달면서...

귀에 퍼 익은 노래였다. 4월도 봄명절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차창에 손저주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는 할수 없는 조건에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꿈을 고이 지켜주시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기에 저 아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는것이 아닌가.

재중동포 김 영 란

자식들을 훌륭한 축구선수로 키우고싶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쏠리고 앞날의 축구명수가 될 꿈을 안은 청소년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곳이 바로 축구학교이다.

공화국에는 나 어린 축구선수후비양성을 위한 축구학교들이 있다.

풍치수려한 풍라도에 평양국제축구학교가 일떠선데 이어 황해북도축구학교가 새롭게 개건되었다.

얼마전에는 동평양지구에 평양시축구학교가 훌륭히 일떠섰다. 이곳 축구학교에는 생활구역과 교육구역이 명백히 갈라져 꾸려져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나이에 따라 소학반, 초급중학반, 고급중학반에서 공부시킨다. 학생선발은 한번으로 고치는것이 아니라 뛰어난 선수후비들은 어느때든 입학할수 있다고 한다. 축구뿐만아니라 수학, 물리과목을 비롯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다같이 배워줄수 있게 갖추어져있다. 10~17살까지의 연령기의 축구선수후비들이 있는것만큼 그들의 특성에 맞게 육체훈련장도 꾸려져있고 야외에 축구훈련장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학교에서는 축구에 대한 교육을 리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있다. 지난 시기 국제국내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공훈체육인, 축구감독들과 여러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 선발된 관록있는 교원들이 실기교육을 담당하고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축구기초기술을 원만한 습득할수 있도록 교수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이곳 학교에는 축구학교의 특성에 맞게 전술모의실과 세계축구발전추세를 알수 있도록 전자다매체전술모의실을 비롯한 특화된시설을 불수 있는 축구교실과 전자도서열람실도 잘 꾸려져있다.

평양시축구학교가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과학연구실에서는 축구과 학과 영양학 등 학생들이 축구경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있다.

학교의 실내와 야외에는 육체훈련장과 축구훈련장이 갖추어져있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경기과정을 통하여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게 하고있다.

부도덕들은 축구와 관련한 흥미있는 직관물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축구세계에 잠겨 배우고 생활하도록 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기숙사에 편의봉사시설들을 잘 꾸려 학생들의 휴식조건을 원만한 보장해줄뿐 아니라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면서 학습과 훈련에 열중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림 광 훈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고구려의 리소왕릉 - 동명왕릉

고구려는 동명왕(고주몽)에 의하여 B.C. 277년에 세워진 후 근 천년동안 동방의 강국으로서 위용을 떨치었다.

평양의 역사유적을 편담하는 우리의 취재는 력포구역 봉산리에 있는 고구려의 시조왕릉인 동명왕릉으로 향하였다.

동명왕릉에 이른 우리는 동명왕을 제사지낼 때 제물을 준비하던 제당과 동명왕을 도와 건국에 공헌한 문관과 무관들을 형상한 돌조각상, 동명왕릉앞에 있는 석상

과 돌등, 비석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동행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의 리일심연구사는 우리에게 고주몽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명왕의 무덤은 427년 고구려가 평양천도를 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고구려사람들은 누구나 시조인 동명왕을 숭배하였으며 그의 출생과 성장, 활동업적을 신비화하여 널리 전해내려왔다. 리일심연구사는 고려시기

의 유명한 시인 리규보가 쓴 서사시 《동명왕》의 서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다. 리규보는 동명왕에 대한 서사시를 쓰게 된 동기를 적은 서문에서 《... 동명왕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창건되던 때의 신성한 자취를 나타내려 하였던것이다. 이것을 이제 서술하여두지 않으면 뒤 세상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으랴. 그러므로 내 노래로써 이 사적을 기록하는것이 우리 나라가 본래 성인이 이룩

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싶어서이니라.》라고 썼다고 한다.

고구려가 강대한 나라였다는것과 누구에 의해 세워졌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고주몽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었다.

최근에는 고주몽의 일대기를 각색한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의 연속편들이 창

작되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오늘은 궁지스럽게 돌이켜보는 고구려의 력사이지만 지난 세기 일제의 어용사들이 끼친 후과로 하여 동명왕을 실재한 인물로 보는 사학자들조차 평양에 동명왕의 묘가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명왕릉과 그 일대를 발굴조사한 결과 벽화와 왕관의 혼들림장식이었던 금묘요와 정물사터에서 《용사》, 《정물》이라는 글자가 적어진 절그릇조각이 발견됨으로써 동명왕의 진짜무덤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민족사에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의 위상을 력력하게 불수 있는 동명왕릉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슴은 한없는 민족적공기로 부풀어올랐다.

본사기자 김혜성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공화국의 첫 2중올림픽우승자 김 일

수능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였다. 하지만 김일선수는 높은 정신력으로 집중순간 외측잡기와 선스레에서 내측다리잡고 정면넘어뜨리기로 연속 점수를 올려 아르메니아선수와의 경기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김일선수는 1992년과 1993년, 1996년에 아시아선수권을 획득하였으며 세계청소년자유형레슬링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1992년에 인민체육인 칭호를, 1996년에는 로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

출생하였다. 《강했던 4년 전처럼 그의 온몸에서는 자신심과 의욕이 넘쳐흐르고있었다.》고 전하였다.

세계의 언론들은 김일선수가 1996년 7월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 자유형레슬링경기에서 또다시 강자들을 꺾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자 제25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그가 세계선수권보유자들을 물리치고 1등을 쟁취하였던 때를 상세히 전하였다.

당시 그와 맞대는 상대는 세계적인 강자인 아르메니아 선수였다. 경기시작부터 아르메니아선

본사기자

설세하면서도 민족적특성이 강한 수예작품들

수예는 회화적성격을 띠고 있는 독특하고 고상한 공예이다.

공화국의 민수대창작사 수예창작단에서 섬세한 기교로 정교하면서도 민족적특성이 강한 수예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최근에 창작된 여러 수예작품들은 독특한 조선수예의 기법을 잘 살리고있다.

이곳 수예창작단은 지난 수십년간 이름난 수예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100여종의 아름다

운 꽃과 70여마리의 새를 형상한 대형수예 《죽원의 꽃바다》, 광면수예 《금강산팔선녀》, 수예 《달밤의 기러기》, 《잉어》, 《범》 등의 작품들은 생동성으로 하여 오늘도 깊은 인상을 주고있다.

특히 대형수예 《단풍든 철보산》(길이 30m, 높이 3m)은 세상에 자랑할만한 작품으로 되고있다.

이곳에서 창작된 수예작품들은 지난 시기 국가미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전람회와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된 국제박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사기자



보약에 못지 않는 자체건강관리

아침에 깨어나서와 잠자기 전에 하는 자체건강관리만 잘하여도 보약을 쓴것 못지 않게 젊음을 유지할수 있다.

- 두손바닥을 마주비빈 다음 얼굴에서부터 이마로 울러문지르기를 100번 한다.
- 손등으로 눈두덩이를 좌우로 100번 문지른다.
- 두손으로 목을 감싸쥐고 좌우로 100번 문지른다.

- 고 좌우로 100번 문지른다.
- 두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으로 두귀를 쥐고 아래로 내려쓸기를 100번 한다.
- 눈을 가볍게 감고 눈알을 아래로 향옆으로 각

각 50번, 향옆으로 돌리기를 각각 50번 한다.
- 굽힌 무릎을 가슴에 안았다가 내려기동작을 10번 한다.
- 누운 상태에서 두발뒤축과 두어깨를 바닥에 지지하고 허리저둥기동작을 10번 한다.

본사기자

냉이도장국

냉이도장국은 냉이와 토장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다. 냉이는 리노작용, 열리작용, 눈을 밝게 하는 작용, 혈압낮춤작용, 피용고작용, 심장혈관확장작용 등을 나타낸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음식감으로 냉이 150g과 양념감으로 토장 25g, 파 10g, 마늘 5g, 맛내기 0.5g을 준비한다.

냉이는 깨끗이 다듬은 다음 길이 3~4cm로 썰어준다. 그리고는 채치 부추, 빈털, 출혈환자들이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단 남비에 토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족악기

방향과 편경

◆ 방향은 악기틀에 쇠 또는 동으로 만든 판대기들을 두단으로 늘어놓아 만든 옛 리악기이다.

우리 선조들이 방향을 사용하기 시작한것은 1114년경이다.

간편하게 걸이를 만들어 메고 다니면서 연주하기도 하고 고취악에서도 사용한 방향은 점차 궁중음악에서 선율을 담당하는 악기로 발전하였다.

방향은 금속편으로 된 첩방향도 있고 돌조각으로 된 석방향도 있다. 방향은 그 소리가 매우 류창하다.

◆ 편경은 악기틀에 음원체인 자그마한 경들을 여러개 묶어서 만든 율률리주악기이다.

우리 선조들이 편경을 사용하기 시작한것은 편종과 같이 1116년경부터이며 궁중악에서만 리용하였다.

이 악기에는 32개로 된 편경과 24개, 16개로 된 것이 있다.

본사기자

